

「訓民篇」의 順讀口訣과 「훈민편허」 고찰

오 창 명*

차 례

1. 서론
- 2 「訓民篇」의 구결
 - 2.1 문자체계
 - 2.2 구결의 형태와 분류
 - 2.3 구결의 문법적 기능
- 3 「훈민편허」의 특징
 - 3.1 서지적 특징
 - 3.2 표기법상의 차이
- 4 결론

I. 서론

이 글은 제주목사를 지낸 양헌수(梁憲洙)가 1864년에 쓴 한문본 「訓民篇」에 단 順讀口訣¹⁾과 한문본 「訓民篇」의 언해인 「훈민편허」를 연구한 것이다. 한문본 「訓民篇」에 단 순독구결의 국어학적인 가치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이 글은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고문서에 쓰인 순독구결을 처음으로 연구·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지역의 순독구결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의의는 한문본 「訓民篇」의 언해인 「훈민편허」를 고찰했다는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釋讀口訣과 順讀口訣이라는 용어는 남풍현(1980, 1988)에 따른다.

것이다. 이 ‘훈민편히’에는 제주도방언의 요소 또는 근대어 요소가 반영되어 있어서 주목을 끈다.

『訓民篇』은 1864년(고종 1년) 2월부터 1866년 8월까지 절제사 겸 방어사로 제주에 부임하여 목사를 지낸 양헌수(1816~1888)가 제주목사로 부임한 해(1864) 8월에 손수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도민의 폐습을 바로잡고 건전한 인륜과 도덕을 권장한 것으로, 하나의 생활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지금도 여러 개가 마을회관이나 개인에게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필사본인 한문본으로 전해지는 것,²⁾ 그리고 필사본인 한문본과 언해본이 함께 전해지는 것 등이 있다. 『訓民篇』은 먼저 한문본을 그대로 필사하고 적당한 句讀處에 略字로 된 한자구결을 단 다음 언해한 것이다. 최근에 제주문화원에서 펴낸 『南遊錄·達告辭·耽羅別曲·訓民篇』(향토자료 5)에 한문본과 언해본이 수록되어 있다.³⁾ 이 책의 저자와

2) 이것은 梁憲洙의 저술인 『荷居集』(序, 券²⁾)의 文편 부록으로 실려 있다. 그런데 제주도내에 남아있는 『訓民篇』 한문본의 본문과는 글자상 미세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양중해본>의 『閉關思過 責在爲官』(2-)이 이 책에는 『閉關思過 責在爲官』(35-)으로, <양중해본>의 『遠而疎者 難的其眞僞』가 이 책에는 『遠而疎者 難的其奸僞』(36-)로, <양중해본>에 『凡有可訟之事 必先進告于該洞任』(6-)이 이 책에는 『凡有可訟者 必先進告于該洞任』으로, <양중해본>의 『冒僞入呈則亦當有別般嚴懲之道』(3-)가 이 책에는 『冒僞入呈者 亦當有別般嚴懲之道』(36-)로, <양중해본>의 『死不足爲戚於家』(3-)가 이 책에는 『死不得爲戚於家』로 표기되고 있다.

한문본 「훈민편」은 후반부가 이두문으로 되어 있다. 是遣/이고, 向事/아안일, 是矣/이디, 是余/이며 등 이두문에서 나타나는 토가 붙어 있다.

3) 이 영인본을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한 면이 14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본을 영인본에서는 한 면을 10행으로 만들어버렸고, 원본에 있는 구결자를 지워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본 1면 13행의 『教訓』 宜可以耳提而面命 故又 茲敷莫切之義 用布莫先之諭를 영인본에는 2면 3행에 『教訓宜可以耳提而面命』으로 되어 있어서, 원본과 면, 행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구결자까지 빠뜨리고 있으니, 특히 구결자를 연구할 때는 반드시 원본을 대조해야 한다.

이 영인본의 원본은 원래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었던 것(양중해, 1976:49)으로 보이나, 지금은 양중해 원장이 소장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양중해본>이라 하겠다. 이 책은 필사본으로, 가로 29.5cm, 세로 30cm의 한지 7장 14면(표제지 제외) 1책으로 되어 있다. 表題紙에 『仁峴 / 梁等 / 甲子八月 日 / 訓民篇』이라고 하였다. 한문본이 3장 6면, 언해본이 4장 8면으로, 한문본은 1면 14행, 1행 18자로, 언해본은 1면 15행, 1행 21자로 되어 있다. 한문본 말미에 『甲子八月 日 /

내용, 발간 경위, 체제, 자료적 가치 등에 대한 간단한 해제는 제주문화원(1999:83~90)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외에 대포 마을회관, 하원 마을회관, 제주교육박물관 등에도 「訓民篇」이 소장되어 있다.⁴⁾

이 글을 쓰면서 기본적인 자료로 삼은 것은 양중해 소장본과 서귀포시 대포동, 하원동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 종류에 나타나는 구결 표기법과 구결의 문법적 기능을, 그리고 언해문 표기법의 특징을 비교·고찰하여 기술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2. 「訓民篇」의 구결

2.1 문자체제

각각의 「訓民篇」에 나타나는 구결의 목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양중해본>

- | | |
|--------|---------------|
| 1) 可/가 | 2) 口(古)/고 |
| 3) 古/고 | 4) 木(赫·赫·彌)/며 |
| 5) 果/과 | 6) 7(隱)/ㄴ |

使라는 표시와 手決이 있다.

- 4) 이들 각각을 <대포동본>, <하원동본>, <교육박물관본>이라 하겠다. <대포동본>과 <하원동본>은 모두 갑자년 10월 대정현에서 翻寫한 것이지만, 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 두 본 모두 표제지에는 '本縣翻寫 / 甲子十月 日(官印) / 訓民篇'이라 하였고, 앞의 <양중해본>과는 달리 언해본 말미에 발급자 표시인 官자와 발급자의 수결 표시가 있고, 그 뒤에 '준하다'라고 쓰여 있다. <양중해본>은 한문본 말미에 발급자 표시인 使자와 수결 표시가 있을 뿐이다. <대포동본>은 가로 26.3cm, 세로 29cm의 한지에, 한문본 3장 5면, 언해본 6장 11면(겉지 제외), 1면 12행, 1행 21~25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원동본>은 가로 29cm, 세로 27.8cm의 한지에, 한문본 3장 5면, 언해본 6장 12면(겉지 제외), 1면 12행, 1행 22~24자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박물관본>은 확인하지 못했다.

「荷居集」의 한문본과 <양중해본>의 한문본, 그리고 <대포동본>의 한문본은 물론 각각의 언해본도 글자상의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荷居集」과 <양중해본>의 '凡各該里士林長老'(권2, 34가)가 <대포동본>에는 '凡諸該里士林長老'(1가)로 표기되어 있다.

- | | |
|--------------|-------------|
| 7) 又(奴)/노·로 | 8) 卜(臥)/와·과 |
| 9) 匕(尼)/니 | 10) 匕(乘)/느 |
| 11) 夕(多)/ | 12) 刀/도 |
| 13) 弋(代)/타·되 | 14) 乙/을 |
| 15) 丩(累·羅)/라 | 16) 日(羅)/리 |
| 17) 丩(面)/면 | 18) 丩(栗)/이 |
| 19) 丩(陽)/ㄴ·은 | 20) 牙(利)/리 |
| 21) 丩(也)/야 | 22) 丩(於)/어 |
| 23) 五/오 | 24) 丩(匡)/에 |
| 25) 之/의 | 26) 丩(平)/호 |
| 27) 丩(為·爲)/호 | |

<양중해본>의 「훈민편」에는 확실하지 않은 구결자를 합하여 30자 정도의 구결자가 쓰였다. 이 중 正字의 全字體로 쓰인 것은 1) 可/가, 3) 古/고, 5) 累/과, 12) 刀/도, 23) 五/오 등 6자이고, 나머지는 正字의 略體字 또는 省劃字, 草書體의 略體字 또는 省劃字로 쓰였다.

2)의 口는 古의 약체자로, ‘고’로 읽힌다. 口는 주로 丩口(호고)와 같이 연결어미로 쓰였다. 그러나 3)의 古는 正字로, ‘고’로 읽히는데, 연결어미 口와는 달리 疑問形 종결어미로 쓰인다.

<하원동본>

- | | |
|------------|---------------|
| 1) 可/가 | 2) 口(古)/고 |
| 3) 古/고 | 4) 尔(孫·孫·彌)/며 |
| 5) 戈/타·되 | 6) 累/과 |
| 7) 丩(陽)/ㄴ | 8) 丩(陽)/은 |
| 9) 丩(陽)/ㄴ | 10) 又(奴)/노 |
| 11) 匕(尼)/니 | 12) 匕(尼)/니 |
| 13) 匕(乘)/느 | 14) 夕(多)/다 |

- | | |
|--------------|--------------|
| 15) 刀/도 | 16) 木/ |
| 17) 乙/을 | 18) 丩(累·羅)/라 |
| 19) 亼(於)/어 | 20) 日(里)/리 |
| 21) 丩(面)/면 | 22) 丩(累)/이 |
| 23) 彡(喪)/아·야 | 24) 牙(利)/리 |
| 25) 丩(也)/야 | 26) 午/오 |
| 27) 卜(臥)/와 | 28) 乙·ㄴ/을 |
| 29) 之/의 | 30) 平(乎)/오 |
| 31) 厶/히 | 32) 丩(為·爲)/히 |

<하원동본>의 「훈민편」에는 확실하지 않은 구결자를 합하여 35자 정도의 구결자가 쓰였다. 正字는 1) 可/가, 3) 古/고, 6) 累/과, 15) 刀/도, 26) 午/오 등 5자가 쓰였고 나머지는 略體字 또는 省劃字가 쓰였다.

<대포동본>

- | | |
|--------------|------------|
| 1) 口(古)/고 | 2) ㄱ(隔)/은 |
| 3) 丩(隔)/ㄴ | 4) 乃/나 |
| 5) 又(奴)/노 | 6) 匕(尼)/니 |
| 7) 尼/니 | 8) 夕(多)/다 |
| 9) 刀/도·디·되 | 10) 乙/을 |
| 11) 丩(累·羅)/라 | 12) 亼(於)/어 |
| 13) 丩(面)/면 | 14) 丩(累)/이 |
| 15) 彡(喪)/아·야 | 16) 牙(利)/리 |
| 17) 五/오 | 18) 卜(臥)/와 |
| 19) 之/의 | 20) 平/오·호 |
| 21) 丩(為·爲)/히 | 22) 厶/히 |

<대포동본>의 「訓民篇」에는 첫째 장에만 구결이 달려 있다. 그러므로

2.2.3 어미류

어미류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고, 어말어미는 다시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눌 수 있다. 또 각각의 어미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선어말어미

확인법 : ㅅㅅㅏ/어니와(양중해본 1ㄱ) (하원동본 1ㄱ)

ㄴㅅㅏ/이언(양중해본 2ㄴ)

ㅅㅅㅓ/어늘(양중해본 3ㄱ)

ㅅㅅㅏㅏ/어니와(대포동본 1ㄱ)

ㄴㅅㅏㅏ/이어니와(양중해본 2ㄱ)

ㄴㅅㅅㅏㅏ/이어니와(대포동본 1ㄴ)

추측법 : ㅏㅓㅓ/ㅎ리니(양중해본 1ㄴ)

ㄴㅓㅓ/이리니(양중해본 2ㄴ)

ㅓㅓ/리오(양중해본 37)

현재법 : ㅏㅓㅓ/ㅎ느니(양중해본 2ㄱ)

ㅅㅅㅓ/어늘(양중해본 3ㄱ)

ㅏㅓㅓ/ㅎ노니(대포동본 1ㄴ)

존경법 : ㅏㅓㅓ/ㅎ시고(양중해본 1ㄴ)

종결어미

평서법 : ㄴㅅ/이라(양중해본 1ㄱ) (하원동본 1ㄱ)

(대포동본 1ㄴ)

ㅅ/라 · 이라 · ㅣ라(양중해본 1ㄱ) (하원동본 1ㄱ)

(대포동본 1ㄴ)

ㅏㅓ/노다 · 로다(양중해본 1ㄱ) (하원동본 1ㄱ)

ㄴㅏㅓ/이노라(양중해본 1ㄴ)

ㅏㅓ/노라(양중해본 2ㄴ)

- ㄴ 禾/이며(양중해본 1ㄱ)
 午/오(양중해본 2ㄴ)
 五/오(하원동본 2ㄴ)
 전제 : ㄷ 弋/호디(양중해본 1ㄱ)
 ㄴ 刀/학디 · 학되(하원동본 1ㄱ)
 平 刀/호디 · 호되(대포동본 1ㄱ)
 ㄷ 戈/학디 · 학되(하원동본 1ㄱ)
 조건 : ㄱ 冫/면(양중해본 2ㄱ) (하원동본 1ㄱ)
 ㄴ 冫/학면(양중해본 1ㄱ) (하원동본 1ㄱ)
 ㄴ 冫/이면(양중해본 1ㄴ)
 양보 : ㄴ 刀/라도(양중해본 1ㄱ) (하원동본 1ㄱ)
 ㄴ ㄴ 刀/이라도(양중해본 1ㄱ)
 단속 : ㄴ 可/라가(양중해본 3ㄴ)
 대조 : ㄴ ㄴ ㄱ/이언(양중해본 2ㄴ)
 ㄴ ㄴ 乙/어늘(양중해본 3ㄱ)
 五 ㄲ/은(양중해본 3ㄱ)
 ㄲ/은 · 른(양중해본 3ㄴ), ㄴ ㄲ/언(양중해본 3ㄴ)
 대립 : 平 乃/호나(대포동본 1ㄴ)

2.3 구결의 문법적 기능

2.3.1 주격 ㄴ(이)

ㄴ(이)는 ㅁ의 아랫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이’로 읽히는 훈가자이다. 주격조사 ‘이/가’에 대응한다.

- 1.1) 營門 ㄴ 亦不勝爲汝輩究之 ㄴ 又 乙(1ㄴ)/영문이 또한 너의를 위하여 원통하로
 라.<양중해본>(4ㄴ~5ㄱ)
 蓋乘霧之良 ㄴ 豈有島陸之殊哉 牙(1ㄴ)/대지 덧덧한 어진 ㅁ음이 엇지 도륙
 이 다르랴.<양중해본>(5ㄱ)

예문 1.1)의 管門는 ‘영문이’, 盖乘彝之良는 ‘대기 덧덧한 어진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주격 ‘이’에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1.2)의 는 다르다.

- 1.2) 管門莅職 今至五朔 參互見聞 繫得民情 一言蔽之 可哀者 吾民也 又(1가)/영문이 도입한지 오삭의 보고 듯는 비를 참호하야 대개 민정을 안이 폐일언하고 가히 불쌍한 거신 내 뵙성이로다.<양중해본>(4가)
- 1.3) 管門 莅職 今至五朔 參互見聞 繫得民情 一言蔽之 可哀者 吾民也 又(1가)/영문이 도입한지 오삭의 보고 듯는 바를 참호하야 대개 민정을 안니 폐일언하고 가히 불쌍한 거슨 내 뵙성이로다.<대포동본>(3나)
- 1.4) 管門莅職 今至五朔 參互見聞 繫得民情 一言蔽之 可哀者 吾民也 又(1가)/영문이 도입한지 오삭의 보고 듯는 바를 참호하야 대개 민정을 안니 폐일언하고 가히 불쌍한 거슨 내 뵙성이로다.<하원동본>(3나)

예문 1.2)와 1.3), 1.4)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원문에 다른 구결자가 붙었음을 알 수 있다. 1.1)의 경우의 는 주격 ‘이’에 대응하지만, 1.2)와 1.3)의 管門의 는 처소부사격조사로 쓰였고, 莅職의 는 주격조사로 쓰였다. 처소부사격 는 중세국어의 처소부사격 ‘의’와 제주방언의 처소부사격 ‘이/의’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莅職는 이해문에서 ‘도입한지’로 이해되고 있음도 주목된다. 한편 1.3)의 可哀者는 구결자대로 ‘가히 불쌍한 거슨’으로 이해했는데, 1.4)의 可哀者도 ‘가히 불쌍한 거슨’으로 이해되고 있음도 주목된다. 전자의 是은 ‘은’의 구결자이지만 후자의 는 ‘이’의 구결자이므로 구결문을 실제 이해하는 경우 해당 구결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원문에 구결자 是을 쓰기도 하고 는 쓰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2.3.2 대격 乙(을)

乙은 ‘을’로 읽히는 훈가자로, 대격 조사로 쓰인다. 乙의 正字를 口訣字로 쓴 것이다.

- 21) 我聖上如傷若保之意乙 將何以對揚_ハ亦 宵衣旰食之憂乙 將何以報效_ハ哉_ハ(1
7)/우리 성상 비침 보시기를 상홀 쓰시 네기샤 어인 즈식 안보홀 ㄹㅌㅅ
뜻실 엇지 씨 더양하며 밤의 옷 입쥬시고 늦게 밥 잡쥬는 근심을 엇지 씨
가프리오<양중해본>(47)

2.3.3 처소부사격 ㄱ(에)와 ㄷ(의)

ㄱ과 ㄷ은 ‘에’와 ‘의’로 읽히는 음가자이다. 중세국어의 처소부사격 ‘의’
/‘의’에 대응한다. <양중해본>에서는 ㄱ를 확인할 수 있고 <하원동본>과
<대포동본>에서는 ㄷ를 확인할 수 있다. ㄱ는 厶의 약체자로, 부수 ㄱ를
표기한 것이다. ㄷ는 正字로 쓰이는 경우와 아래부분을 생략한 것을 쓰
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에서는 ㄷ의 윗부분 ㄴ를 생략한 글자가 쓰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 31) 凡諸該里士林長老ト 尊位頭民_ハ 每於晨夕之暇_ハ 招會里內 子弟婦女_ハ;
讀而聽之_ハ(17)/각 이 선비 늘근이와 조위 두민 이 락양 아츨 전역의 동
니 즈져와 부네올 모아 일켜들려<양중해본>(44)
- 32) 凡諸該里士林長老ト 尊位頭民_ハ 每於晨夕之暇_ハ 招會里內 子弟婦女_ハ;
讀而聽之_ハ 詳論細曉_ハ 各加勉勵_ハ; 毋或違戾_ハ(17~18)/각 니 선
비 늘근이와 존위 두민이 락양 아츨 저녁의 동니 즈져와 부려올 모아 일켜
들여 즈상이 기유하고 각각 힘써 혹 또 어긋게 마라.<대포동본>(47)
- 33) 殫誠竭力_ハ 靡不用極以及葬祭_ハ 終身以之然後_ハ 始可謂萬一之報也_ハ(1
18)/힘을 다하야써 죽어 장스와 제스하매 맞춤 ㄹㅌㅅ 몸미 못도록 배 혼 후
에 가히 만분지 일나나 갑프미 되는 디라.<하원동본>(57)

예문 31)과 32)의 동일한 원문 ‘每於晨夕之暇 招會里內’에 전자는 구
결자 ㄱ를, 후자는 구결자 ㄷ를 쓰고 있다. 그러나 언해문에서는 ‘락양 아
츨 전역의 동니 즈져와 부네올 모아’와 같이 ‘의’로 언해하고 있음이 주목
된다. 그리고 33)의 ‘終身以之然後’의 ㄷ는 <양중해본>과 <하원동본>
의 언해문에서 ‘에’로 언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세국어의 ‘의/의’와는 달
리 ㄱ(에)와 ㄷ(의)는 체언의 끝소리와 모음 종류에 따른 제약이 적용되

지 않고 있다.

2.3.4 도구부사격 又(노·로)와 乙又·ㄴ又(을노·을로)

又와 乙又·ㄴ又是 원래 ‘노’와 ‘을노’로 읽히는 음가자이지만, ‘로’와 ‘오로’로 읽혔다. 도구의 부사격조사 ‘로’와 ‘오로’에 대응한다. 又是 ㄴ의 생략자로, 오른쪽 부분을 취한 것이다. ㄴ은 乙의 변체자이다. 乙又와 ㄴ又是 乙·ㄴ과 又를 합한 것이다.

- 41) 濟州島民 而自經民亂乙又 尤爲不誣々 ヽヒ(1ㄴ)/므득 제쥬섬 스통이라 이
르고 밀난 후로부터 더욱 올타 이르느이<양중해본>(4ㄴ)
- 42) 濟州島民々々 ヽ口 自經民亂又 尤爲不誣々 ヽ又ヒ(1ㄴ)/므듯 제쥬섬 사똥
이라 이르고 민난 후로부터 더욱 올타 이르지 아니하느니<대포동본>(4ㄴ)
- 43) 使人又 稱濟州一島曰是鄒是曾云 爾則營門 亦與有榮焉又々(2ㄱ~ㄴ)/스똥
으로 하야곰 저쥬 한 섬을 일컫되 추나라히요 노나라히라 하면 영문이 또한
더부러 영화이시리로다.<양중해본>(6ㄱ)
- 43) 使人ㄴ又 稱濟州一島曰是鄒是曾云爾則營門亦與有榮焉々又々(2ㄱ)/사똥으로
하여곰 데쥬 한 섬을 일컫되 추나라히요 노나라이라 하면 영문니 또한 더부
러 영폐이시리로다.<하원동본 6ㄱ>

예문 41)과 42)는 동일한 문장인데, ‘自經民亂乙又’와 ‘自經民亂又’를 ‘밀난 후로부터’와 ‘민난 후로부터’로, 43)과 44)의 ‘使人又’와 ‘使人ㄴ又’를 ‘스똥으로’와 ‘사똥으로’로 언해하고 있으므로 乙又·ㄴ又와 又是 ‘을로·오로’ 또는 ‘로’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표기는 변별적이지 않고 수의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5 동반의 부사격 卜(와)와 𠄎(과)

卜와 𠄎는 ‘와’와 ‘과’로 읽히는 음가자로, 동반·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접속의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卜는 𠄎의 생략자인 오른쪽 人의 변체자이다. 卜와 𠄎는 현대국어와 같이 체언의 끝

소리가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구별된다. 중세국어와 같이 ‘ㄹ’ 받침 아래에서 ㅏ를 쓴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 5.1) 凡諸該里士林長老ト 尊位顯民、每於晨夕之暇、招會里內子弟婦女、
讀而聽之、(1ㄱ~ㄴ)/각 이 선비 늘근이와 조위 두민 이 띠양 아츨 전역
의 동니 즈저와 부네을 모와 일켜들여<양중해본>(4ㄴ)
- 5.2) 蓋其互相綱膠之端、隱微奸僞之狀、何得以因其文不成說之隙、
辨其詐不以實之地乎、(2ㄴ)/셔로 얼키논 곳과 온미하고 간사흔 얼고을 엇지 말 아이된
쇼지늘 인하야 그 간사하고 실름지 아이흔 일을 분별하랴<양중해본>(6ㄱ~6ㄴ)
- 5.3) 本事得失、元不甚大、設如快志、畢竟無補而往來之勞、
遐邇之費、已自多缺、則何健之至此也、(5ㄴ)/근본 일이 크지 아이하니 설혹 모름예
케하여도 필경 도음이 업고 왕니흔는 슈고와 두류하논 허비 만흔즉 엇지 송
스 조와하미 이 곳트뇨<양중해본>(6ㄱ)

예문 5.1)의 ㅏ는 ‘와’로, 5.2)의 ㅏ는 ‘과’로 읽히며, 동반의 부사격조사로 쓰이고 있다. 5.3)의 ㅏ는 접속의 기능을 하고 있다.

2.3.6 처소부사격 ㄴ(이)

위의 주격 ㄴ(이)의 설명을 참고할 것.

2.3.7 주제·대조의 보조사 ㅍ(ㄴ)과 ㄱ(ㄴ)

ㅍ과 ㄱ은 모두 ‘(으)ㄴ’으로 읽히는 음가자로, 주제 또는 대조의 보조사로 쓰인다. ㅍ과 ㄱ은 ㄴ(은)의 부수 ㅍ의 약체자로, ㅍ은 ㅍ의 오른쪽 아랫부분을 생략한 것이고, ㄱ은 ㅍ의 오른쪽 아랫부분과 왼쪽 부분을 생략한 것이다. ㅍ도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주제·대조의 보조사로 쓰이는 경우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7.1) 衣食ㅍ 困不得戶惠而人賜ㅍ 히ト 教訓ㅍ 宜可以耳提而面命 故又 茲敷莫切
之義 用布莫先之論、(1ㄱ)/의식은 집마다 주고 스텸마다 주지 못하려이와
가리치은 가히 씨 귀를 이슌고 못하야 명훈셴 고로 이러케 근절흔 의와 문

저 홀 효유을 베풀되<양중해본>(4ㄴ)

7.2) 衣食1 固不得戶惠而人賜ㅅ1 ㄴ ㄷ 敎訓1 宜可以耳提而面命 故又 茲敷莫切之義 ㄷ 用布莫先之諭ㅅ1(1ㄱ)/의식은 집마다 주고 사름마다 주지 못하려 니와 7르치른 가히 베풀 귀를 익히고 늦하야 명홀센 고로 이러케 2절헌 의 와 먼저 홀 효유를 베풀되<대포동본>(4ㄱ)

예문 7.1)의 衣食ㅅ과 敎訓ㅅ, 그리고 7.2)의 衣食1 과 敎訓1은 모두 '(으)ㄴ'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주제·대조의 보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3.8 지적의 보조사 ㅅㅅ(란)과 ㅅ1(란)

ㅅㅅ과 ㅅ1은 '란'으로 읽히고, 중세국어 '지적'을 뜻하는 '란'에 대응된다. ㅅ는 𪎮(라)의 약체자 ㅅ의 아랫부분을, ㅅㅅ과 ㅅ1은 𪎮(은)의 부수 ㅅ의 일부분을 딴 글자이다.

8.1) 向於人也 則一言之逆而怒之ㅅㅅ 今也ㅅㅅ 萃衆罵而不顧ㅅㅅ 向於人也 則一錢之較而訟之ㅅㅅ 今也ㅅㅅ 蕩家產而不惜ㅅㅅ 此ㅅ 明是五臟 不具者也 ㅅ<3ㄱ>/상에는 스톱이 혼 말 거스리면 노하다가 이제는 모다 무시져도 도라 보지 아이하고 상에는 스톱과 혼 도을 교계하야 송스하다가 이저는 가산을 탕진호되 악기지 아이하니 이는 정영 오장이 업는 자라<양중해본>(7ㄱ)

예문 8.1)의 '今也ㅅㅅ'은 '이제는'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ㅅㅅ은 '란'으로 읽을 수 있고 '지적' 또는 '대조'를 뜻한다.

2.3.9 故又/고로

故又는 '고로'로 읽힌다. 又는 奴(노)의 오른쪽을 취한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고로'는 문맥 상황에 따라 형식명사 또는 부사로 쓰인다. 이는 구결문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의미는 '까닭으로, 하므로' 정도다.

9.1) 敎訓ㅅ 宜可以耳提而面命 故又 茲敷莫切之義 用布莫先之諭ㅅㅅ(1ㄱ)/가리

치은 가히 씨 귀를 이슬고 늦하야 명홀센 고로 이려케 곤절한 의와 문져 홀
효유을 배풀되<양중해본>(4ㄴ)

- 9.2) 萬鎰之財P 朝失而夕可復得\스ヒト 兄弟之身P 一亡則已矣\스 故又 兄而
不友\스 弟而不悌\스 曾禽獸之不若\스 亦何以立於世乎(2ㄱ)/만양 지물은
아침의 일코 저녁의 다시 어드러이와 형제의 몸은 한번 업시면 그 뿐이라.
그런고로 형이 우익 아이코 아우 공경 아이흐면 금슈만 갖지 못흔지라.<양
중해본>(5ㄴ)<하원동본>

예문 9.1)의 ‘故又’는 언해문의 ‘명홀센 고로’를 고려하면 명사류로, 9.2)의 ‘故又’는 언해문의 ‘그런고로’를 고려하면 부사류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부사류로 다룬다.

2.3.10 스(라)와 \스(이라)

스는 ‘라’로, \스는 ‘이라’로 읽힌다. 스와 \스는 종결어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嗚呼스’(오호라)와 같이 감탄사 뒤에 붙기도 한다.

- 10.1) 雖身文錦而口膏梁\스カ 不可謂之生也\스(1ㄴ)/비록 몸의 비단을 입고 입
의 고랑을 머저도 가히 살미라 이르지 못홀지라.<양중해본>(5ㄱ)
- 10.2) 彼固不諒\스ヒト 我當加勉\스(1ㄴ)/저의 진실로 아지 못하거이와 내 더
욱 조심홀지라.<양중해본>(5ㄱ)
- 10.3) 畢竟其絲之身 穀之腹則舉不免鶉鷄之形\스ヒ 嗚呼스(1ㄱ)/필경 몸의 옷 입
고 배에 곡식호른 다 순작과 제육기 얼굴을 면치 못하이 싨프다.<양중해본>(ㄱ)
- 10.4) 營門莅職\스 今至五朔\스 參互見聞\스 槩得民情 一言弊之\스 可哀者吾
民也又\스<1ㄱ>/영문이 도입흔지 오삭의 보고 듯는 비를 참호하야 대개 민
정을안 이 때일언하코 가히 불쌍흔 거신 내 빅성이로다.<양중해본 4ㄱ>
- 10.5) 故又 兄而不友\스 弟而不悌\스 曾禽獸之不若\스 亦何以立於世乎(2ㄱ)/그
런고로 형이 우익 아이코 아우 공경 아이흐면 금슈만 갖지 못흔지라 엇지
세상의 서리요<양중해본>(5ㄴ)

예문 10.1)과 10.2)와 같이 대개 스는 모음 뒤에, \스는 자음 뒤에 쓰인다. 그러나 10.4)와 같이 ‘今至五朔\스’의 경우 ‘오삭의’로 언해한 것으로

로 보아 실제 구결과 언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0.3)의 ‘嗚呼스’는 현대국어의 감탄사 ‘오호라’에 대응하는 것인데 ‘실프다’ 또는 ‘슬프다’로 의역한 것이 이채롭다. 10.5)의 ‘曾禽獸之不若스’는 ‘금슈만 못지 못하리라’로 언해되고 있으므로 이때의 스는 원인·이유의 연결어미로 쓰인 것이다.

2.3.11 又스(노라)와 ㄴ又스(이노라), ㅂ又스(호노라)

又스와 ㄴ又스, ㅂ又스는 각각 ‘노라’와 ‘이노라’, ‘호노라’로 읽히는 종결어미이다. 계사 ㄴ는 생략되기도 한다. ㅂ는 屬(호)의 변체 為의 윗부분을 딴 것으로, 어간 ‘호-’의 표기이다. 又스는 ‘노라’는 정중한 느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현대국어의 ‘-로다’ 또는 ‘-도다’에 대응한다.

11.1) 使人又 稱濟州一島曰是鄒是曾云 爾則營門 亦與有榮焉又스(2ㄱ~ㄴ)/스
됨으로 호야곰 저쥬 호 섬을 일컫되 추나라히요 노나라히라 호면 영문이 또
호 더부러 영화이시리로다.<양중해본>(6ㄱ)

11.2) 使人ㄴ又 稱濟州一島曰是鄒是曾云爾則營門亦與有榮焉ㄴ又스(2ㄱ)/사름으
로 호여곰 대쥬 호 섬을 일컫되 추나라히요 노나라이라 호면 영문니 또호
더부러 영화이시리로라.<하원동본 6ㄱ>

11.3) 凡我子弟 銘着砥勳ㅂ 另圖新譽ㅂ 痛雪舊恥 千萬是幸ㄴ又스/무릇
우리 즈계은 효유 뜻실 명심호고 착염호야 별로히 새로 칭찬호물 도모호야
집히 이전 부쓰리물 잊치미 천만다행호도다.<양중해본>(5ㄱ)

11.4) 凡我子弟 銘着砥勳ㅂ 另圖新譽ㅂ 痛雪舊恥 千萬是幸ㅂ又스(1
ㄴ)/무릇 우리 즈계은 효유 뜻슬 명심호고 착럼호야 별로히 새로 칭찬호
물 도모호야 집히 이전 부쓰러우물 시치기 천만다행호로라.<대포동본
>(4ㄴ~5ㄱ)

예문 11.1)과 11.2)는 동일한 원문인데, 전자는 又스가, 후자는 ㄴ又스가 쓰였다. 이로 보아 계사 ㄴ는 수의적으로 생략된다. 11.3)과 11.4)도 동일한 원문인데, 전자는 ㄴ又스가, 후자는 ㅂ又스가 쓰였다. 계사 ㄴ와 어간 ㅂ도 수의적으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천만다행이다’

형태로 언해되어야 하는 것이 ‘천만다행하다’ 형태로 언해된 것이 특이하다.

2.3.12 소ㅂㅏ(어니와)와 소ㅂㅏㅏ(어니와), ㅏ소ㅂㅏ(이어니와)

소ㅂㅏ와 소ㅂㅏㅏ는 ‘어니와’, ㅏ소ㅂㅏ는 ‘이어니와’로 읽힌다. 계사 ㅏ는 생략되기도 한다. 소는 於(어)의 오른쪽을 차자한 것이고, ㅏ는 尼(니)의 부수 尸를 제외한 부분을 차자한 것이고, ㅂ은 厶(은)의 부수 卩의 일부분을 차자한 것이고, ㅏ는 𠂇(와)의 부수 臣을 제외한 부분을 차자한 것이다. 소는 계사 뒤에서 ‘ㄱ’음이 탈락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법의 선어말어미이다. ‘-어니와’는 현대국어의 추가설명을 뜻하는 ‘-거니와’의 예스런 말이다.

121) 衣食ㅂ 固不得戶惠而人賜소ㅂㅏ 教訓ㅂ 宜可以耳提而面命 故又 茲教莫切之義 用布莫先之論ㅏㅏ(1ㄱ)/의식은 집마다 주고 스물마다 주지 못하려이와 가리치은 가히 써 귀를 이끌고 닳하야 명홀썬 고로 이려케 근절흔 의와 몬져 홀 효유를 배풀되<양중해본>(4ㄴ)

122) 衣食1 固不得戶惠而人賜소ㅂㅏㅏ 教訓1 宜可以耳提而面命 故又 茲教莫切之義ㅏ 用布莫先之論ㅏㅏ(1ㄱ)/의식은 집마다 주고 샤름마다 주지 못하려니와 ㄹ르치은 가히 써 귀를 이끌고 닳하야 명홀썬 고로 이려케 근절흔 의와 몬져 홀 효유를 배푸되<대포동본>(4ㄱ)

123) 萬鎰之財ㅂ 朝失而夕可復得ㅏ소ㅂㅏ 兄弟之身ㅂ 一亡則已矣ㅏ(2ㄱ)/만양 직물은 아침의 일코 저녁의 다시 어드러이와 형제의 몸은 한번 업시면 그 뿐이라.<양중해본>(5ㄴ)

예문 121)과 122)는 동일한 원문인데, 전자에는 소ㅂㅏ가, 후자에는 소ㅂㅏㅏ가 붙었다. 전자는 ‘어니와’를 표기한 것이고, 후자는 ‘어니와’ 또는 ‘어니와’를 표기한 것이다. 이 두 예문의 소ㅂㅏ·소ㅂㅏㅏ(어니와) 앞에는 모음이 왔는데, 123)의 ㅏ소ㅂㅏ(이어니와) 앞에는 자음이 왔다. 곧 계사 ㅏ는 모음 뒤에서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13 又々(노다)

又々は '노다'로 읽히는 구결이다. 々は 多의 한 부분을 차자한 것이다. 계사 ㄴ은 흔히 생략된다. 현대국어의 '-로다'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중한 느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13.1) 繫得民情^ㄴヒ 一言蔽之^ㄴ可哀者 吾民也又々(1ㄱ)/대개 민정을 안이 폐
일언하고 가히 불쌍한 거신 내 백성이로다.<양중해본>(4ㄱ)

13.2) 夫沈惑雜技者乙 誠未曉其意也又々<3ㄱ>/그 잡귀를 혹하는 재 그 쓰실
아지 못홀지라<양중해본>(6ㄴ~7ㄱ)

13.3) 教訓^ㄴ 急於政令者^ㄱ 不得兩言而審矣又々(1ㄱ)/교훈니 정녕보담 급하
두 말 업시 즈상하도다.<대포동본>(4ㄱ)

예문 13.1과 13.2), 13.3)의 又々は 也와 矣 등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 붙었다. 계사 ㄴ와 ㄴ는 문맥에 따라 적절히 첨가하여 이해한다. 그리고 々(다)도 이해 과정에서는 '-라'로도 이해하고 있다.

2.3.14 ㄴㄱ(하야)와 ㄴ(하야)

ㄴㄱ와 ㄴ는 '하야'로 읽히고, 중세국어의 '하야'에 대응한다. ㄱ는 也(야)의 뒷부분을 딴 것이고, ㄴ는 喪(어)의 초서체 일부를 딴 것이다.

14.1) 山戶則胼胝於石田而力之ㄴㄱ 終歲勤勞^ㄴ 式日奔奏^ㄱ(1ㄱ)/산촌 스름
은 돌밭의 손발이 병 되도록 힘써 하마다 근로하고 날마다 분주하되<양중
해본>(ㄱ)

14.2) 山戶則胼胝於石田而力之ㄴ 終歲勤勞^ㄴ 式日奔奏^ㄴ(1ㄱ)/산촌 사름
은 돌밭의 손발리 병 되도록 힘써 하마다 글로하고 할마다 분주하되<대포
동본>(3ㄴ)

예문 14.1)과 14.2)는 동일한 원문인데, 전자에는 ㄴㄱ가, 후자에는 ㄴ가 붙었다.

2.3.15 ㄴㅇ(ㅎ고)와 ㄴㅅㅇ(ㅎ시고)

ㄴㅇ과 ㄴㅅㅇ은 각각 ‘ㅎ고’와 ‘ㅎ시고’로 읽히고, 중세국어 ‘ㅎ고’와 ‘ㅎ시고’에 대응한다. ㅇ은 古(고)의 부수를 딴 것이다. ㅅ은 ㅅ의 오른쪽 아랫부분을 딴 것으로, 존경법 선어말어미를 나타낸다.

151) 若或不爾ㄴ 天厭之ㄴㅅㅇ 鬼嫉之ㄴㅇ 人誅之ㄴㅇ 何以立於世乎(1)
 ㄴ/만일 그러치 아이하면 하늘이 실허ㅎ시고 귀신이 미여ㅎ고 스름이 꾸진
 눈이 엇지 썬 세상의 육남ㅎ리요<양중해본>(5ㄱ)

152) 莫切於孝梯ㄴㅇ 官之所以治者ㄴ 固主乎政令而莫先於教訓ㄴㅇ(1ㄱ)/효도과
 공경흠만 근절흠이 업고 관장의 다시리는 바는 정령을 주장ㅎ되 ㄱ르치기만
 몬쳐 흠미 업시니<하원동본>(3ㄴ~4ㄱ)

예문 15.1)과 15.2)의 -ㅇ(고)는 병렬관계를 나타낸다. 15.1)의 ㄴㅅㅇ(ㅎ시고)는 언해문에서도 그대로 ‘ㅎ시고’로 언해되고 있다.

2.3.16 ㄴㅇ(ㅎ니)와 ㄴㅇㅅ(ㅎ노니), ㄴㅇㅅ(ㅎ리니), ㄴㅅㅇ(ㅎ시니), ㄴㅇㅅ(ㅎ느니)

ㄴㅇ는 ‘ㅎ니’, ㄴㅇㅅ·ㄴㅇㅅ(ㅎ노니), ㄴㅇㅅ(ㅎ리니), ㄴㅅㅇ는 ‘ㅎ시니’, ㄴㅇㅅ(ㅎ느니)로 읽힌다. ㅇ는 尼(니)의 오른쪽 아랫부분을 딴 것인데, 정자체 尼도 쓰인다. ‘-ㅇ’(니)와 ‘-ㅇㅅ’(노니)는 까닭이나 근거,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나타낼 때 쓰인다. -ㅇ(-노-)는 ‘-노-’로 읽기도 하지만 현재법으로 쓰일 때는 ‘-느-’로 읽히기도 한다. ㅅ는 事(리)의 일부분을 딴 것으로 ‘리’로 읽히며 추측법을 나타낸다. ㅅ는 時(시)의 일부분을 딴 것으로 ‘시’로 읽히며 존경법을 나타낸다. ㅇ는 來(늘)의 일부분을 딴 것으로 ‘느’로 읽히며 현재법을 나타낸다.

161) 輒曰 濟州島民而自經民亂乙又 尤爲不誣ㅅ ㄴㅇ 凡爲吾民者ㄴ 聞此不美之
 目ㄴㅇ 獨不憤痛於心乎(1ㄴ)/므득 제쥬섬 스름이라 이르고 밀난 후로부터
 더욱 울타 이르느이 므룻 나 빅성더라 이 불미흔 말을 듯고 홀로 마음의 분

치 아이흐나<양중해본>(4ㄴ)

162) 輒曰 濟州島民^스 ^ㄴ 自經民亂^又 尤爲不誣^스 ^ㄴ 又尼 凡爲吾民者 聞此
不美之目^ㄴ 獨不憤痛於心乎^ㄴ (1ㄴ)/무듯 제쥬섬 사뭇이라 이르고 민난 후
로봇터 더욱 올타 이르지 아니흐느니 무릇 내 빅성드라 이 불미흐 말올 듯
고 홀로 므옴의 분치 안이흐나.<대포동본>(4ㄴ)

163) 夫孝於親者^ㄱ 耕于田則天與之豐^ㄴ ^ㄴ 商于貨則人助之厚^ㄴ ^ㄴ 此^ㄱ 必然
之理也^스 (1ㄴ~2ㄱ)/어버이게 효도흐는 재는 농스흐면 하늘이 풍연 쥬고 장
스흐면 스통이 후의로 돕는 이이논 반듯흐 이치라.<양중해본>(5ㄱ~ㄴ)

164) 不孝於親者^ㄱ 天不與人^ㄴ 不助而百事不成^ㄴ ^ㄴ 終至滅亡^ㄴ ^ㄴ 可不懼哉^ㄴ (2
ㄱ)/어버이거 효도치 아이흐는 자는 하늘이 쥬지 아이흐시고 스통이 돕지
아이흐야 빅스 이루지 못흐야 므츄내 멸망흐논이 가히 두렵지 아이흐랴.<양
중해본>(5ㄴ)

예문 16.1)과 16.2)은 동일한 원문인데, 전자에는 ^스 ^ㄴ ^ㄴ (라 흐니)가, 후자에는 ^스 ^ㄴ ^ㄴ (라 흐노나→라 흐느니)가 붙었다. 곧 현재법의 ^又 (노→^ㄴ)가 수의적으로 생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6.30의 ^ㄴ ^ㄴ ^ㄴ (흐느니)의 ^ㄴ (느)도 현재법을 나타낸다. 16.4)의 ^ㄴ ^ㄴ ^ㄴ (흐리니)는 언해에서 ‘흐느이’로 언해되었지만 ‘할 것이니’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ㄴ (리)는 추측법을 나타낸다.

2.3.17 ㄱ(면)과 ㄴㄱ(흐면), ㄴㄱ(이면)

ㄱ은 ‘면’, ㄴㄱ과 ㄴㄱ은 각각 ‘흐면’과 ‘이면’으로 읽힌다. ㄱ은 面(면)의 윗부분을 딴 것으로 ‘면’으로 읽힌다. 연결어미 ‘-면’에 대응한다.

17.1) 故^又 兄而不友^ㄴ ^ㄴ 弟而不悌^ㄴ ^ㄴ 曾禽獸之不若^스 ^ㄴ 亦何以立於世乎^ㄴ (2ㄱ)/그
런고로 형이 우의 아이코 아우 공경 아이흐면 금슈만 ㄴ지 못흐지랴.<양중
해본>(5ㄴ)

17.2) 十室之邑^ㄱ 必有忠信^ㄴ ^ㄴ 一里之聚^ㄴ ^ㄴ 豈無公議^ㄴ ^ㄴ 曰五(2ㄴ)/열집 잇는 고을
에도 반더시 충신 이시니 혼 므올 모든 디 엇지 공변흐 의논이 업서리요<
양중해본>(6ㄴ)

17.3) 民而無孝悌^ㄴ ^ㄴ 雖有衣食^스 ^ㄴ 決不得爲生^ㄴ ^ㄴ 五 ^ㄴ 官而無教訓^ㄴ ^ㄴ 雖有政令

ㄴㅏ 亦不得爲治ㄴ 然則孝悌 重於衣食ㄴ 敎訓 急於政令者 不得兩言而審矣 又(1ㄱ)/씩성이 효제 업시면 비록 의식이 이셔도 살미 되지 못하고 관장이 ㄱ르치미 업시면 비록 정영이 니셔도 다시리미 되지 못하논니 그 러한직 효제 의식보담 중하고 교훈니 정녕보담 급하든 두 말 업시 즈상하도 다.<하원동본>(4ㄱ)

17.4) 閉閣思過ㄴ 責在爲官ㄴ 實不勝棟楹之極也 又(2ㄴ)/문을 닫고 허물을 생각하미 취망이 관장의게 이시니 실상 두렵고 붓그리물 이과지 못하리로 다.<하원동본 6ㄴ>

예문 17.1)과 17.2), 17.3)의 ㄴ(면)과 ㄴ(이면)은 모두 가정적 조건이 나 전제적 조건을 나타내는데, 계사 ㄴ는 선행 음운에 관계없이 수의적으로 탈락하고 있다. 17.4)의 경우도 ㄴ(ㅎ면)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ㄴ만 쓰이고 있다.

2.3.18 ㅏ(라도)와 ㄴㅏ(이라도)

ㅏ와 ㄴㅏ는 각각 '라도'와 '이라도'로 읽힌다. 가정이나 양보적인 뜻을 나타내는 '-라도' 또는 '-더라도' 에 대응한다.

18.1) 官而無敎訓ㄴ 雖有政令ㄴ 亦不得爲治ㄴ ㄴ(1ㄱ)/관장이 ㄱ르치미 업 시면 비록 정영이 니셔도 다시리미 되지 못하논이<양중해본>(4ㄴ)

18.2) 以訟民言之ㅏ 或儉安圖書ㄴ<3ㄱ>/송민이 혹 도서를 도적하야 마치고<양중해본>(6ㄴ)

예문 18.1)과 18.2)의 ㄴㅏ와 ㅏ의 환경을 보면, 전자는 자음 뒤, 후자는 모음 뒤이나 '雖有不食ㅏ'와 같이 자음 뒤에서도 ㄴ가 생략되고 있다. 역시 계사 ㄴ는 수의적으로 생략된다.

2.3.19 ㅏ(호되·호되)와 ㅏ(호되), ㅏ(호나)

ㅏ와 ㅏ는 각각 '호되'와 '호되'로 읽힌다. ㅏ는 ㅏ(호)의 윗부분을 딴 것으로 '호'로 읽힌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ㅏ와 같이 '호'로도 차자되

있음을 알 수 있다. ㅅ는 ㅅ(대→디·되)의 오른쪽 부분을 딴 것으로 '디·되'로 읽힌다. ㅍ는 음이 '도'지만 전용된 음인 '디·되'로도 읽힌다. 이두 升落只(되지기)가 刀落只(되지기)로 표기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191) 山戶則胼胝於石田而力之ㄴ; 終歲勤勞ㄴㄹ 式日奔奏ㄴㅅ 畢竟其絲之身
毅之腹則舉不免鶉鷄之形ㄴㅅ 嗚呼ㄴ(1ㄱ)/산촌 스톨은 들밭의 손발이 병 되
도록 힘써 허마다 근로하고 날마다 분주하되 필경 몸의 옷 입고 비에 곡식
호른 다 순작과 씨옥기 얼굴을 면치 못하이 싣프다.<양중해본>(ㄱ)

192) 山戶則胼胝於石田而力之ㄴ; 終歲勤勞ㄴㄹ 式日奔奏ㄴㅍ 畢竟其絲之身ㄴ
ㄹ 毅之腹則舉不免鶉鷄之形ㄴㅅ 嗚呼ㄴ(1ㄱ)/산촌 사툼은 들밭의 손발리 병
되도록 힘써 허마다 글로하고 랄마다 분주하되 필경 몸의 옷 입고 비에 곡
식호은 다 순작과 다오기 얼굴을 면치 못하니 싣프다.<대포동본>(3ㄴ)

예문 19.1)과 19.2)는 동일한 원문인데, '式日奔奏ㄴㅅ'와 '式日奔奏ㄴㅍ'와 같이 다른 구결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ㅅ와 ㅍ는 모두 'ㅎ디>ㅎ되'의 표기로 같은 것이다.

2.3.20 ㄴㅅ(ㅎ며)와 ㄴㅅ(이며)

ㅅ는 '며', ㄴㅅ와 ㄴㅅ는 각각 'ㅎ며'와 '이며'로 읽힌다. ㅅ는 彌(미)의 약자인 弥·旆의 오른쪽 부분을 딴 것으로 '며'로 읽히고 연결어미 '-며'에 대응한다.

20.1) 我聖上如傷若保之意乙 將何以對揚ㄴㅅ 宵衣旰食之憂乙 將何以報效哉牙(1
ㄱ)/우리 성상 빙성 보시기를 상홀 쓰시 네기샤 어인 즈식 안보홀 ㄱㅅ신
뜻실 엇지 씨 더양하며 밤의 옷 입주시고 늦게 밥 잡슈는 근심을 엇지 씨
가프리오<양중해본>(4ㄱ)

20.2) 我聖上 如傷 若保之意乙 將何以對揚ㄴㅅ 宵衣旰食之憂乙 將何以報效哉
ㄴㅅ(1ㄱ)/우리 성상 빙성 보시기늘 상홀 쓰 너기샤 어린 즈식 안보홀 ㄱ
트시 쓰슬 엇지 씨 더양하며 밤의 옷 입주시고 늦게 밥 잡슈는 근심을 엇지
씨 가프리오<대포동본>(3ㄴ)

예문 20.1)과 20.2)는 동일한 원문인데, ‘將何以對揚ㄴホ’과 ‘將何以對揚ㄴホ’과 같이 ㄴホ와 ㄴホ의 ㄴ와 ㄴ는 수의적으로 교체됨을 알 수 있다.

2.3.21 牙(리)

牙는 ‘리’로 읽히고 추측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쓰인다. 牙는 利(리)의 부수 禾의 변체이다.

21.1) 宵衣旰食之憂乙 將何以報效哉牙(1ㄱ)/밤의 옷 입주시고 늦게 밥 잡수논 근심을 잊지 썬 가프리오<양중해본>(4ㄱ)

21.2) 宵衣旰食之憂乙 將何以報效哉ㄴ五(1ㄱ)/밤의 옷 입주시고 늦게 밥 잡수논 근심을 잊지 썬 가프리오<대포동본>(3ㄴ)

예문 21.1)과 21.2)는 동일한 원문인데, ‘將何以報效哉牙’와 ‘將何以報效哉ㄴ五’와 같이 다른 구결이 쓰였다. 의미도 같다. 牙(리)는 그 자체가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지만 ㄴ五(이리오)는 추측의 선어말어미 ㄴ와 의문의 종결어미 五가 결합한 것이다.

2.3.22 五(오)와 午(오), ㄴ五(이오)와 ㄴ午(이오), ㄴ五(리오), ㄴ五(이리오)

五와 午는 ‘오’로 읽히고,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오’에 대응한다. 五와 午는 앞에 계사가 붙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그리고 추측법의 선어말어미 ㄴ가 붙기도 한다.

22.1) 本事得失ㄴ 元不甚大ㄴヒ 設如快志ㄴカ 畢竟無補而往來之勞ㄴ 逕過之費ㄴ 已自多缺則何健之至此也ㄴ五<2ㄴ>/근본 일이 크지 아이하니 설혹 믿음에 채하여도 필경 도움이 업고 왕니하논 슈고와 두류하논 허비 만흔즉 잊지 송스 죠와하미 이 ㄴ트뇨<양중해본>(6ㄱ)

22.2) 十室之邑ㄴ 必有忠信ㄴヒ 一里之聚ㄴ 豈無公議ㄴ五(2ㄴ)/열집 잇논 고올에도 반디시 충신 이시니 혼 믿음 모든디 잊지 공변하논 의논이 업시리오<양중해본>(6ㄴ)

22.3) 少不下四五多五 或至十餘ㄴヒ 苟欲其察ㄴㄱ 寧或不知ㄴ五<3ㄴ>/저거도

스오 인이요 만하면 심여 명이니 진실로 슬피고져 후면 엇지 아지 못하리
요<양중해본>(7ㄴ)

22.4) 十室之邑 必有忠信 一里之聚 豈無公議 ㄷㄴ(2ㄴ)/열집 인는 고을
래도 반드시 충신이 이시니 한 마을 모든지 엇지 공변한 의논이 업스리요<
하원동본 7ㄱ>

22.5) 凡遭誥辱 莫不憤怒者 爲其貶已也 五 凡遭橫奪 莫不訟推者 爲其惜
已也 ㄸ(3ㄱ)/후욕을 만나면 분노하는 자는 그 몸 아픈를 위함미요 횡탈
을 만나면 송스하는 자는 그 몸 악귀를 위함미라<양중해본>(7ㄱ)

22.6) 凡遭誥辱 莫不憤怒者 爲其貶已也 ㄴ 凡遭橫奪 莫不訟推者 爲
其惜已也 ㄸ(3ㄱ)/후 욕을 만나면 분노하는 자는 그 몸 나무래를 위함미요
횡탈을 만나면 송스하는 제것 앓기를 위함미라.<하원동본 7ㄴ>

예문 21.1)과 21.2), 21.3), 21.4)를 비교해 보면 계사 ㄴ는 수의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종결어미 五와 ㄴ도 수의적으로 쓰고 있다. 예문
22.5)와 22.6)의 五와 ㄴ는 연결어미 '-오' 또는 '-고'에 대응되는 것이다.

2.3.23 ㄸㅍ · ㄸㄱ (관), 五ㄱ (은), ㄴㄱ (는)

ㄸㅍ · ㄸㄱ 은 '관'으로 읽히며 '은/는' 또는 어미 '-으면, -거든' 등에 대
응한다. 五ㄱ 과 ㄴㄱ 은 각각 '은'과 '는'으로 읽힌다.

23.1) 如有不檢者 ㄸㅍ 卽爲成報捉上 ㄴ; 以爲依律勸處是旆 ㄴ(3ㄴ)/만일 고치지
아이하는 자 잇거든 곳 보장을 일위고 자바 울러 썬 법을 의지하야 다시리
되<양중해본>(7ㄴ)

23.2) 如有不檢者 ㄸㄱ 卽爲成報捉上 ㄴ; 以爲依律勸處是旆 ㄴ(3ㄴ)/만일 고치지 안
니하는 재 잇거든 곳 보장을 일위고 자바울어썬 법을 의지하야 다시리되<
하원동본 8ㄱ>

23.3) 從今以往 ㄴㄱ 將此諭令 ㄴ; 日夕譴曉 ㄴ; 毋或更犯是矣 ㄴ(3ㄴ)/이후로 이
영을 가져 주야 의호고 썬와 후 다시 범커 말되<양중해본>(7ㄴ)

23.4) 是可忍也 五ㅍ 孰不可忍也 五(3ㄱ)/이를 가히 차마 후곤 브어실 가히
차마 못하리요<양중해본>(7ㄱ)

예문 23.1)과 23.2)는 동일한 원문인데, 전자는 ‘如有不悛者스P’으로, 후자는 ‘如有不悛者스1’로 표기되었다. 23.3)은 ㄱ1은 ‘논→론’으로 읽을 수 있으나 ‘로논’의 뜻을 나타낸다. 23.4)의 ㅍP은 ‘온’으로 읽을 수 있으나 ‘-곤’ 또는 ‘-고는’의 뜻으로 쓰인다.

2.3.24 슌(라가)

스ᄇᆞᆫ는 ‘라가’로 읽히는 연결어미이다. ‘-다가’에 대응한다.

24.1) 向於人也 則一言之逆而怒之스ᄇᆞᆫ 今也스P 萃衆屬而不顧ᄃᆞᆫ 向於人也 則一錢之較而訟之스ᄇᆞᆫ 今也스P 蕩家產而不惜ᄃᆞᆫ 此P 明是五臟 不具者也 슌<37>/상에는 슌이 한 말 거스리면 노후다가 이제는 모다 꾸지저도 도라 보지 아이하고 상에는 슌과 한 도을 교체하야 송스ᄇᆞᆫ다가 이저는 가산을 탕진호되 악기저 아이하니 이는 정영 오장이 업는 자라<양중해본>(77)

2.3.25 ㄴᄃ(하나)

ᄃᆞᆫ는 음이 ‘내’이지만 유사한 음인 ‘나’로 읽힌다. 대립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나’에 대응한다.

25.1) 夫內地之人1 每稱鄰頑ᄃᆞᆫ 輒曰 濟州島民스ᄃᆞᆫ 自經民亂又 尤爲不誣스ᄃᆞᆫ ᄃᆞᆫᄃᆞᆫ 凡爲吾民者 聞此不美之目ᄃᆞᆫ 獨不憤痛於心乎ᄃᆞᆫ(1ㄴ)/너지 사뵈믈 므룻 띤양 영악하믈 일크르미 못뵈 제주섬 사뵈미라 이르고 민난 후로뵈터 더욱 올라 이르지 아니하느니 무룻 내 뵈성드라 이 불미흔 말을 뵈고 홀로 므옴의 분치 안이하냐.<대포동본>(4ㄴ)

2.3.26 ᄃᆞᆫ(고)

ᄃᆞᆫ는 정자체로 ‘고’로 읽힌다. 물음을 나타내는 반말투의 의문 종결어미 ‘-고’ 또는 ‘-오’에 대응한다.

26.1) 凡人스ᄃᆞᆫ 匪父何生스ᄃᆞᆫ 匪母何育ᄃᆞᆫ(1ㄴ)/므룻 슌이 아비 아이면 엇지 나며 어미 아이면 엇지 기러나이오<양중해본>(1ㄴ)

3. 「훈민편허」의 특징

3.1 서지적 특징

간단한 서지적 특징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내용상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한다.

연구자료로 삼은 『訓民篇』은 <양중해본>과 <하원동본>, <대포동본> 등 3종이다. <양중해본>은 갑자년(1864) 8월에 쓴 것이고, <하원동본>과 <대포동본>은 이보다 두 달 뒤인 갑자년 10월에 대정현에서 翻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이본은 미세한 차이가 있다.

다음의 한문 문장에 달린 구결과 언해문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 3.1) 推茲以往 在親戚則宜盡其睦 在鄉黨則宜盡其和 事長老以敬 接朋友以信然後始乃立於世而不負其生 於是乎 父母安而孝 乃全矣<訓民篇> (『荷居集』 권2)
- 3.2) 推茲以往ㄴ; 在親戚 則宜盡其睦ㄴ五 在鄉黨則宜盡其和ㄴ五 事長老以敬ㄴ
 口 接朋友以信然後始乃立於世而不負其生ㄴ; 於是乎 父母安而孝 乃全矣ㄴ(2
 7)/친척에 돈목하고 향당에 화집하고 어른을 섬기되 공경의로써 하고 벗실
 사귀되 신으로써 혼 후에 비로소 형세하고 그 살물 등지디 아니하야 부모
 편안하고 효도 온전홀지라.<양중해본>(5ㄴ)
- 3.3) 推茲以往ㄴㄹ 在親戚則宜盡其睦ㄴㄹ 在鄉黨則宜盡其和ㄴㄹ 事長老以敬ㄴㄹ
 口 接朋友以信然後之 始乃立於世而不負其生ㄴㄹ 於是乎 父母安而孝 乃全矣ㄴ
 (27)/친척의 돈목하고 향당의 화집하고 어른을 섬기되 공경으로써 하고 버
 슬 사귀되 신으로써 혼 후에 비로소 형세하고 그 살물 등지디 아니하야 부
 모 변양하고 효도 온전홀지라.<하원동본>
- 3.4) 推茲以往 在親戚則宜盡其睦 在鄉黨則宜盡其和 事長老以敬 接朋友以信然後始乃立於世而不負其生 於是乎 父母安而孝 乃全矣(27)/친척의 돈목하고 향당의 화집하고 어른을 섬기되 공경의로써 하고 버슬 사귀되 신으로써 혼 후에 비로소 형세하고 그 살물 등지디 아니하야 부모 편안하고 효도 온전홀지라.<대포동본>

예문 3.1)은 양헌수의 문집인 『荷居集』 권2에 부록으로 수록된 한문본

「訓民篇」(필사본)의 일부이고, 3.2)는 양증해 소장본의 일부이고, 3.3)은 하원동 마을회관본, 3.4)는 대포동 마을회관본의 일부이다. 3.2)와 3.3)을 비교해 볼 때, 구결이 다른 것으로 보아 애초에는 구결이 달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언해문을 비교해 보면, 큰 줄기는 차이가 없으나 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언해본이 붙어있었던 것인데 배끼는 과정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대정현에서 翻騰한 것이 구결도 다르고 언해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배졌던 사람이 다른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4.1) 輒曰 濟州島民而自經民亂之又 尤爲不誣々 ~ヒ 凡爲吾民者 聞此不美之目~口 獨不憤痛於心乎(1~) / 무득 계주섬 스톱이라 이르고 밀난 후로부터 더욱 올라 이르느이 무릇 나 뵈성더라 이 불미흔 말을 두고 홀로 마음의 분치 아이흐다 <양증해본> (4~)
- 4.2) 輒曰 濟州島民~々 ~口 自經民亂又 尤爲不誣々 ~又ヒ 凡爲吾民者 聞此不美之目~口 獨不憤痛於心乎(1~) / 무듯 계주섬 사람이라 이르고 민난 후로부터 더욱 올라 이르지 아니흐느니 무릇 내 뵈성드라 이 불미흔 말을 두고 홀로 마음의 분치 안이흐나. <대포동본> (4~)

한편 예문 4.1)과 4.2)의 ‘尤爲不誣々 ~ヒ’와 ‘尤爲不誣々 ~又ヒ’를 비교해보면, 전자는 ‘더욱 올라 이르느이’로, 후자는 ‘더욱 올라 이르지 아니흐느니’로 이해하였다. 전자가 언해상 오류를 보이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3.2 표기법상의 차이

<양증해본>의 언해 首題는 ‘훈민편허’라고 하였고, <하원동본>과 <대포동본>의 언해 수제는 ‘훈민편허’라 하였다.

「훈민편허」의 첫째 문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奮門莅職今至五朔參互見聞樂得民情一言蔽之可哀者吾民也

- 1) 영문이 도입한지 오삭의 보고 뜻는 비를 참조하여 대개 민정을 안니 폐일 언하고 가히 불쌍한 거신 내 빅성이로다.<양중해본>(47)
- 2) 영문이 도입한지 오삭의 보고 뜻는 바를 참조하여 대개 민정을 안니 폐일 언하고 가히 불쌍한 거슨 내 빅성이로다.<대포동본>(31)
- 3) 영문이 도입한지 오삭의 보고 뜻는 배를 참조하여 대개 민정을 안니 폐일 언하고 가히 불쌍한 거슨 내 빅성이로다.<하원동본>(32)

세 자료 모두 營門莅職今至五朔을 ‘영문이 도입한지 오삭의’로 이해하고 있다. 처소의 부사격조사로 ‘이’를 쓰고 있다. 특히 ‘오삭의’의 ‘의’는 부사격으로 쓰이고 있음이 특이하다. ‘뜻는’의 경우 다른 근대국어자료와 같이 ‘든-’을 달리 적고 있다. ‘비를, 바를, 배를’의 경우는 세 자료가 모두 다르게 적고 있다. ‘민정’의 경우도 ‘민정’과 같이 옛 한자음을 반영한 자료가 있는가 하면 ‘민딩’과 같이 구개음화 이전 음을 반영한 자료도 있다. 부정부사 ‘아니’도 당시 개인적인 발음을 반영하여 ‘안이’ 또는 중철표기를 하여 ‘안니’로 적고 있음도 특이하다. ‘불쌍한’과 ‘불상한’의 경우, 전자의 ‘불’은 원순모음화 이전 음을, ‘쌍’은 현실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불’은 원순모음화 이후 음을, ‘상’은 근대국어자료에 나타나는 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거신’과 ‘거슨’(것은)도 개인적인 발음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표기는 세 자료 각각에서 일관되게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 표기가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훈민편허」의 경우 어떤 사람이 읽고 받아쓴 것으로 추측된다. <양중해본>의 경우, 부정부사 ‘아니’가 ‘안이, 아이, 아이ㅎ-’로도 나타나고, <대포동본>의 경우도 ‘안니, 안이, 아이ㅎ-, 아니ㅎ-’로도 나타난다. <하원동본>의 경우 ‘홀 대(할 때), 형대(형제), 대주(祭酒), 친덕(親戚)’과 같이 비교적 구개음화 이전 음을 반영한 것이 많다.

세 자료 모두 제주도방언을 반영한 흔적이 많다. 가령 ‘영문이’(영문에), ‘밤의’(밤에)와 같이 처소 부사격조사로 ‘이’ 또는 ‘의’를 쓴 것, ‘밭’을 ‘뵈’로 쓴 것, ‘없-’의 활용형을 ‘엇시면, 업시면, 업스면’ 등으로 쓴 것,

‘뜻이’를 ‘쓰시’로 쓴 것, ‘ㅎ-’의 활용형을 ‘못ㅎ논이(못하노니) ㅎ러이와(하러니와), ㅎ거이와(하거니와)’ 등으로 쓴 것 등 전체적으로 제주도방언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4. 결론

이 글은 제주목사를 지낸 양헌수가 1864년 8월에 쓴 「훈민편」에 기입된 순독구결과 이의 언해인 「훈민편히」의 표기법과 문법적 특징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본 글이다.

이 글의 의의는 제주지역에서 발견된 순독구결을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문서에도 구결이 기입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동안 후대의 자료라는 점과 구결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후대의 구결자료라도 연구되어야만 올바른 구결사가 정리될 것이고, 또한 기존에 확인하지 못했던 구결자도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우리 자료에서 발견되는 ㄹ의 윗부분 ㄴ를 생략한 생략자는 다른 자료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훈민편히」는 한문본 「訓民篇」의 언해인데 제주도방언을 그런 대로 반영한 자료라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언해는 당시 언해자의 현실언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 제주도방언을 반영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훈민편히」는 참고가 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 이본을 찾아내어 재차 확인하고 연구가 정리되면 이 당시 제주에서 썼던 순독구결의 목록과 체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제주도방언을 반영한 「훈민편히」도 제주도방언 연구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구결학회(1996), 『口訣研究』, 1집.
남풍현(1980), “口訣과 吐”, 『국어학』 9, 국어학회.
남풍현(1988),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남풍현(1990), “고려말·조선초기의 구결연구 : 楞嚴經 記入吐의 표기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69호, 진단학회.
남풍현(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태학사.
안병희(1977), 『중세국어구결의 연구』, 일지사.
양중해(1976), “梁憲洙著「訓民篇」연구”, 『논문집』 8집, 제주대학교.
유태일(1989), 『한국문헌학연구 : 국문학연구의 기초』, 아세아문화사.